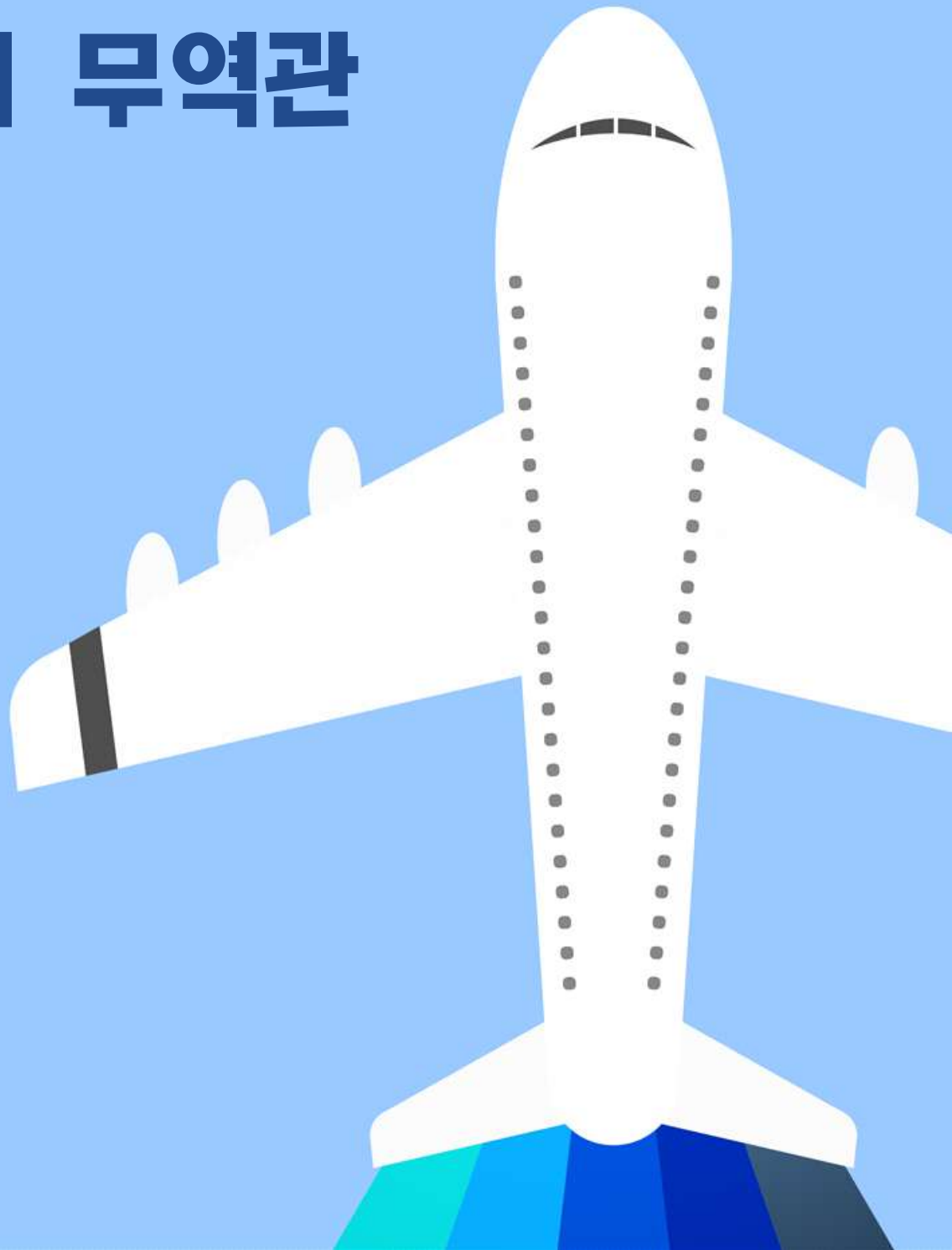


2023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

Vancouve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현지 체류 정보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3
III. 한·캐 교류 현황	9
IV. 캐나다 서부 개황	11
V. 加 서부시장 현황 및 전망	16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19

I. 현지 체류 정보

1. 현지 기후

밴쿠버 날씨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 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 정도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많음

2. 체류 유의사항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 차림(양복 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품 Supermarket(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매 가능

시차

- 한국 표준시간 KST -16시간 (서머타임 기간)*
 - 예)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서머타임 기간: 3월 12일(일) ~ 11월 5일(일)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치안

- 밴쿠버 도심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 지역은 슬럼가로 노숙자(Homeless)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주의를 요함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 (주정부세 7%, 연방세 5%)이 별도로 부과됨
 - 식당 이용 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5~20% 수준의 팁이 일반적임. 6~8명 이상 단체 손님 이용 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때도 있어서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 있음

□ 현금 사용

-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를 대비 현금 보유 필요

3. 주요 연락처

□ 밴쿠버무역관

- 주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화 : +1-604-683-1820 / 팩스 : +1-604-687-6249
- 이메일 : ktc@kotrayvr.com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II. 캐나다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CANADA)
수 도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km ² (세계 2위, 한반도 45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인 구	3,985만 명(2023. 6월)
연방구성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주요지역	온타리오(1,550만 명), 퀘벡(773만 명) BC(543만 명), 앨버타(470만 명), 서스캐처원(122만 명), 매니토바(144만 명), 노바스코샤(104만 명), 뉴브런즈윅(83만 명) 등
언 어	이중 공용어(영어 58% 및 불어 22%)
민 족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15%), 원주민(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6%), 기타 혼혈(26%)
종 교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국 체	입헌군주국(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7 USD)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Charles III ○ 취임일: 2022.9.8.
	○ 총독: Mary Simon(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21.7월(임기 5년+)
	○ 총리: Justin Trudeau(실권자) ○ 취임일: 2015.1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2. 최근 경제 개황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USD	1.741조	1.643조	1.990조	2.057조
1인당 GDP	USD	46,212	43,278	50,722	56,794
실질경제성장률	%	1.9	-5.4	5.0	3.6
물가상승률	%	1.9	0.7	3.4	6.8
실업률	%	5.7	9.6	7.5	5.3
대미환율	CAD/USD	0.75	0.74	0.79	0.77
수출	USD	4,461억	3,894억	5,039억	5,968억
수입	USD	4,536억	4,052억	4,916억	5,674억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World Data Atlas, Trade Data Online, Bank of Canada(2023년)

□ 2023년 경제 동향

- (GDP) 2분기 국내총생산, 7분기 만에 성장률 제자리. 하반기 '경기둔화' 신호탄
 - 서비스산업 성장(+0.2%)에도 불구하고 상품산업 위축(-0.3%)*으로 '23년 2분기 근 2년來 처음으로 GDP 분기 성장률 둔화 기록
 - 중앙은행은 '24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하며 경기둔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물가) 7월 인플레이션 3.3%. 식품, 에너지 '물가 상승' 압박 지속
 - '22년 6월 인플레이션 역대 최고치^{▶8.1%} 기록. 이후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에 힘입어 7월 3.3%까지 하락
 - 하지만 식품^{▶8.5%}과 에너지^{▶8.2%}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22년 9월 이후 4.0~4.5% 선에서 정체된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 목표선^{▶2%}을 두 배 가까이 상회
 - 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 2%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소비) 내수 반짝 성장 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가계소비 '위축'
 - '22년 캐나다 정부가 역대 최다 규모의 이민자^{▶432,000명}를 유치하며 팬데믹 이후 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23년 상반기 신규 일자리 29만 개 창출}로 내수 부문 소비 성장 견인
 - ▶2023년 상반기 소매 판매(CAD 3,891억) 전년동기대비 2.2% 성장
 - 아울러 캐나다 주택 시장이 '23년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7월 주택 거래량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가계 순자산 증가 효과로 이어져 소비 지출 증가를 견인
 - 하지만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4년까지 소비 감소,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 심화 예상

3. 캐나다 대외 무역(2023년 7월 누적 기준)

□ 수출입 현황

- 글로벌 경기둔화에 수출 부진, 7월 무역수지 흑자 전년비 80% 급감
 - (수출) 전년 동기(3521억 달러) 6.9% 감소한 3279억 달러
 - (수입) 전년 동기(3300억 달러) 2.0% 감소한 3235억 달러
 - (수지) 7월까지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44억 달러 흑자

<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

(단위: US\$백만)

구분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수출	389,492	503,900	596,826	327,970	-6.9%
수입	405,214	491,652	567,484	323,077	-2.0%
무역수지	-15,722	12,248	29,342	6,053	-79.9%

* 2023년 7월 누적 실적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 국가별 현황

- 상위 10대 교역 대상국 중 (수출) 중국 제외 9개국 감소, (수입) 미국 등 3개국 감소
 - (수출) 주요 수출 감소국은 영국(-37.3%), 한국(-33.6%), 일본(-16.3%)임
 - (수입) 주요 수입 감소국은 중국(-15.3%), 한국(-13.6%), 미국(-0.8%)임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

(단위: US\$백만)

수출				수입			
국가명	2022	2023*	증감률*	국가명	2022	2023*	증감률*
미국	459,834	254,518	-6.9	미국	278,495	161,264	-0.8
중국	21,905	12,833	14.7	중국	76,813	36,900	-15.3
일본	13,821	7,067	-16.3	멕시코	31,129	19,636	7.0
영국	14,006	5,730	-37.3	독일	17,221	11,126	12.3
멕시코	6,928	3,795	-5.4	일본	13,137	8,575	9.4
독일	5,766	3,048	-3.1	이탈리아	9,286	5,582	6.4
한국	6,661	2,975	-33.6	베트남	9,850	5,474	3.1
네덜란드	4,976	2,969	-1.2	한국	10,171	5,428	-13.6
인도	4,085	2,072	-1.4	영국	6,632	4,158	8.3
브라질	3,111	2,004	-3.8	프랑스	5,969	3,780	9.1
총계	541,093	297,017	-7.5	총계	458,703	261,923	-1.7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상위 10대 교역 품목 중 (수출) 에너지 원자재 감소 (수입)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물차, 터빈 등 기계 및 부품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수출 상위 10대 품목 수출액 전년비 14.1% 감소
LPG(-35.2%), 유연탄(-27.0%), 원유(-24.2%), 정유(-16.8%)
- (주요 수입품) 수입 상위 10대 품목 수입액 전년비 2.9% 증가
자동차부품(21.4%), 터빈(16.0%), 승용차(15.0%), 화물차(9.7%)

○ BC주 7월 항만노조 파업 여파로 對 아시아 교역 급감, 공급망 불안 가중

- BC주 밴쿠버항과 프린스루퍼트항은 대표적인 加 서부 교역 관문으로 캐나다 교역 상품의 25%를 처리 ▶연간 처리 화물량 약 2,900억 달러 규모
- BC주 항만노조 파업 장기화로 ▶7월1일~8월4일 화물 하역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한국을 포함한 對 아시아 교역량이 크게 하락 ▶수입규모 전월비 한국 -9.4%, 중국 -7.2%, 일본 -5.4%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률*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률*
1	2709	원유	120,562	54,709	-24.2	8703	승용차	31,883	21,180	15.0
2	8703	승용차	29,470	21,283	21.2	8708	자동차부품	16,967	11,797	21.4
3	7108	금	14,963	10,387	16.8	8704	화물차	17,539	11,475	9.7
4	2711	LPG	23,119	8,926	-35.2	2710	정유	20,052	9,328	-19.8
5	2710	정유	17,035	8,805	-16.8	2709	원유	16,559	8,357	-18.0
6	8708	자동차부품	12,843	7,904	7.9	8517	전화기	12,754	6,997	9.6
7	1001	밀	7,947	5,475	43.4	8471	PC부품	11,420	5,654	-16.0
8	3104	비료	12,627	5,461	-26.3	7108	금	8,105	5,647	20.5
9	2701	유연탄	10,825	5,280	-27.0	3004	의약품	10,015	5,617	-2.9
10	3004	의약품	9,661	5,103	-20.3	8411	터빈	5,758	3,654	16.0
합계			259,052	133,333	-14.1	합계		151,052	89,706	2.9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4. 캐나다 시장 특성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 지역별 산업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지역	GDP 비중	주요산업 및 특성
동부	온타리오, 퀘벡,	약72%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기업 본사 소재
서부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약28%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광업, 임업, 서비스업 * AB,SK주: 광업, 농식품업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전체 교역량의 약 66% 차지(수출 77%, 수입 49%)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다른 국가제품들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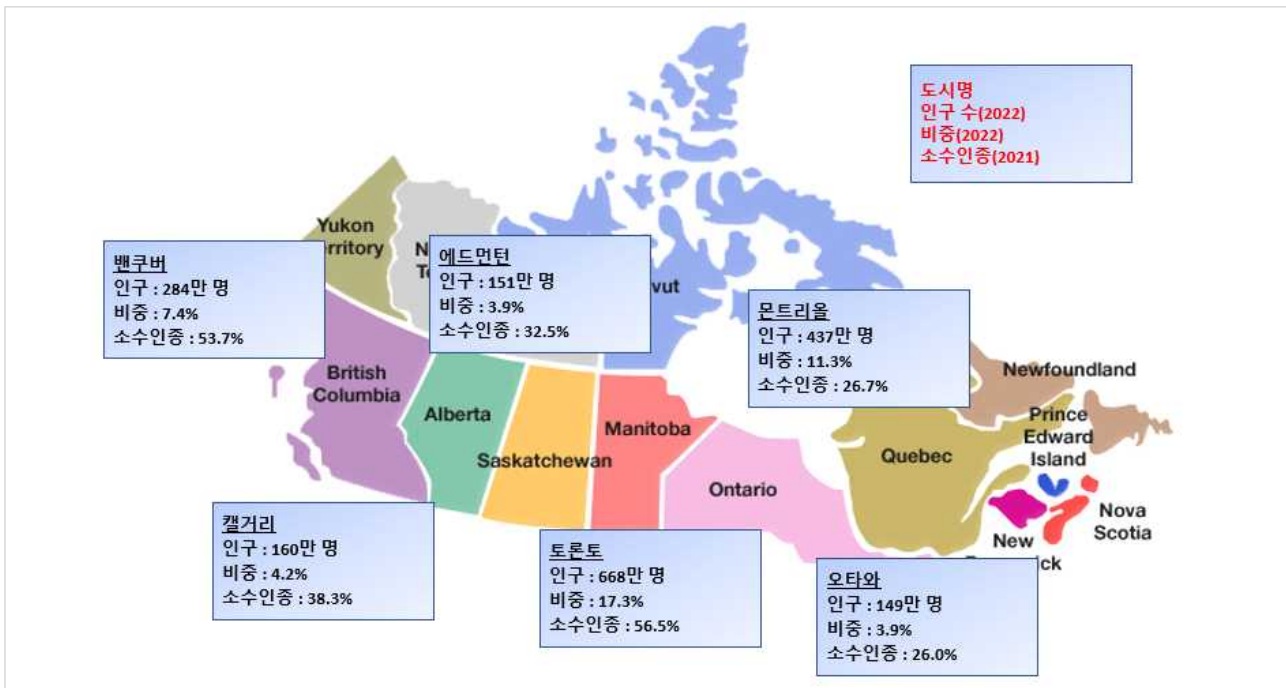
□ 제품별 유통망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제품별로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함.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가전: Future Shop, Radio Shack, Best Buy, Visions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SportsCheck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주류(정부 독점)를 제외한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 아시아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주의(multi-culturalism)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 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오랜 이민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캐나다 주요 6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2년)

□ 가성비 높은 실용적인 제품 선호

- **고기능성 제품도 비싸면 구매수요 약해, 가성비 높은 제품 선호**
 - 현지 시장에서는 소비재 제품의 경우 품질과 기능이 우수한 ‘고기능성’ 제품이라도 현지 소비자 눈높이 기준에서 가격이 높으면 구매 수요가 약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실용성을 갖춘,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큼
 - 또한 식품의 경우 건강, 친환경 등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를 지닌 제품이 시장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편임

Ⅲ. 한·캐 교류 현황

1. 한·캐 무역 동향(2023년 7월 누적 기준)

□ 수출입 개요

- (수출) 전년동기(47억7900만 달러) 3.9% 증가한 49억6700만 달러
- (수입) 전년동기(50억4900만 달러) 25.6% 감소한 37억5600만 달러
- (무역) 전년동기(98억2800만 달러) 11.2% 감소한 87억2300만 달러
- (수지) 7월까지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12억1100만 달러 흑자

<한국 대(對) 캐나다 교역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7월)
수출	5,568	5,464	6,714	7,839	4,967
수입	5,759	4,415	6,370	8,539	3,756
무역수지	-191	1,049	345	-700	1,211
총교역액	11,327	9,879	13,084	16,378	8,723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년 9월 기준)

□ 품목별 수출입

○ 승용차, 전기차, 건설중장비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성장세 기록

- 캐나다 정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존 내연기관▶^{33.0%} 위주에서 전기차▶^{144.6%}와 하이브리드차▶^{90.3%} 수출이 빠르게 증가

<한국 대(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7411	승용차	2,522	1,898	33.0	1322	유연탄	2,624	1,064	-35.7
2	7414	전기자동차	410	578	144.6	1130	동광	680	397	-13.3
3	7419	기타자동차	365	434	90.3	1120	철광	702	280	-31.3
4	7420	자동차부품	294	158	-17.8	0221	가축육류	372	225	12.5
5	1112	은	91	129	218.3	2262	의약품	610	212	-26.2
6	6141	철강관	265	124	7.7	1350	LPG	499	185	-37.2
7	6134	아연도강판	106	74	-3.9	2511	펄프	308	146	-11.7
8	7251	건설중장비	95	66	14.6	6231	니켈	188	96	-23.0
9	8230	냉장고	124	63	-25.2	7472	항공기부품	80	90	51.5
10	2140	합성수지	111	56	-21.2	0131	식물성유지	209	58	-39.2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년)

2. 한·캐 투자 동향(2023년 2분기 누적 기준)

□ 캐나다의 對 한국 투자 현황(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3년 2분기 기준 전년비 404.0% 증가한 2.6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비 12.5% 감소한 14건 기록

(단위 : U\$백만)

연도	2020	2021	2022	2023(6월)
신고금액	1,847	502	507	257
신고건수	49	38	27	14

- (업종별) ‘23년 상반기 부동산, 금융/보험, 제조, 광업, R&D/과학기술 부문 투자 집중
- 특히 부동산, 금융/보험업, 광업 부문 외국인 투자가 전년비 크게 성장

(단위 : U\$백만, %)

구분	2022		2023(6월)		전년동기 증감률(6월)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부동산	2	20	2	119	100.0	16,906.0
금융/보험	1	0.3	1	74	0.0	24,690.7
제조	10	49	5	42	-50.0	-13.4
광업	0	0	2	19	200.0	1,900.0
R&D/과학기술	4	0.4	2	0.2	0.0	-8.3

□ 한국의 對 캐나다 투자 현황(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3년 2분기 기준 전년비 23.4% 증가한 19.9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비 8.1% 증가한 67건 기록

(단위 : U\$백만)

연도	2020	2021	2022	2023(6월)
신고금액	2,566	3,417	2,614	1,993
신고건수	92	101	105	67

- (업종별) ‘23년 상반기 광업, 금융/보험, 건설, 제조 부문에 투자 집중

- 광업, 건설, 운수/창고 부문 전년비 투자 증가, 금융/보험, 제조, 연구개발은 투자 감소

(단위 : U\$백만, %)

구분	2022		2023(6월)		전년동기 증감률(6월)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광업	7	23	8	1,525	60.0	51,415.7
금융/보험	27	1,125	24	348	41.2	-47.2
건설	2	1	5	50	150.0	7,051.9
제조	14	379	9	42	28.6	-88.2
운수/창고	3	33	1	11	0.0	50.8
R&D/과학기술	9	31	5	7	0.0	-78.0

IV. 캐나다 서부 개황

1. 지역 현황

□ 개요

- 캐나다 서부 지역 5개 (준)주 위치 ⇨ 하지만 경제·산업은 3개 주에 집중
 - (지리개관)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1,135만 명 정도로 1/4 수준
 - (경제규모) 실질 GDP C\$7,278억(캐나다 전체 GDP의 35.4% 차지)



-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약 7만 1,750명(2021년 인구센서스 집계 기준)
 - (모국어 기준) 영어(732만 명, 71.1%) vs 한국어(8만 865명, 0.8%)
 - (민족/문화 기준) 캐나다인(105만 명, 10.2%) vs 한국인(9만 8천 명, 1.0%)
- <加 서부 3개 주 한인 인구 현황(2021년 인구센서스 통계 기준)>

구분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합계
언어 (모국어*)	영어: 67.1% 한국어: 1.2%	영어: 73.0% 한국어: 0.5%	영어: 81.7% 한국어: 0.2%	영어: 71.1% 한국어: 0.8%
민족 문화	캐나다: 9.3% 한국: 1.5%	캐나다: 11.5% 한국: 0.6%	캐나다: 9.6% 한국: 0.2%	코카서스: 10.2% 한국: 1.0%

* 모국어: 출생 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언어(First Language).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경우 새로이 습득한 Second Language를 모국어로 인정

□ 서부 정치 상황

○ 서부 5개 주 집권당, '5당 5색'

- (집권정당) 신민당(1) + 보수당(1) + 서스캐처원당(1) + 자유당(1) + 무소속(1)
- (정치성향) 진보성향(2) + 보수성향(2) + 무소속(1)

지역	수상		집권당	정치성향	정부형태
BC	David Eby		신민당 (NDP)	진보	다수정부 (Majority)
앨버타	Danielle Smith		보수당 (UC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서스캐처원	Scott Moe		서스캐처원당 (S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유콘	Ranj Pillai		자유당 (Liberal)	중도좌파	소수정부 (Minority)
노스웨스트 준주	Caroline Cochrane		무소속 (합의제)	-	-

○ 주요 3개 주 정치 이념 및 특징

- **(BC)**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공존. 보수당과 진보당이 양립하고 있으며,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과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나뉨.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
- **(앨버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임. 보수당인 앨버타 진보 보수당(Alberta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오랫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또 다른 보수당인 연합보수당(United Conservative Party)가 다수당으로 집권. 앨버타주는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친경제적 정책을 선호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서스캐처원)** 주민 대다수가 보수성향 강해 정치적으로도 보수당이 지배적이며, 2007년 이후 중도우파의 서스캐처원당이 다수당으로 지지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서스캐처원주는 농업과 광업 등 자원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경제 개방성은 높은 편임

2. 경제 현황

□ 경제지표

- 加 서부 3개 주 평균 성장률(4.1%), 전국 평균 상회, 앨버타 성장률 전국 최고
 - (성장률) 앨버타(4.8%) > 서스캐처원(4.7%) > BC(2.8%)
 - (무역) 수출(U\$2,475억) > 수입(U\$1,026억) ⇨ 무역 흑자 지속
- <2022년 캐나다 서부 3개 주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실질 GDP	C\$억	2,900	3,516	862
실질경제성장률	%	2.8	4.8	4.7
실업률	%	4.6	5.8	4.9
무역 규모	U\$억	1,098	1,884	519
상품 수출	U\$억	503	1,569	403
상품 수입	U\$억	595	315	116

자료원: Statistics Canada, 서부 3개 주 2023/24 예산안(2023년)

□ 산업구조

- 산업별 GDP 기여도: 서비스 63.5% vs 상품 36.5%
 - (서비스) 부동산(C\$968억, 14.0%) > 의료(C\$446억, 6.5%) > 금융(C\$332억, 4.8%)
 - (상품) 광업(C\$1,249억, 18.1%) > 건설(C\$567억, 8.2%) > 제조(C\$460억, 6.7%)
 - 쉐 산업 중 숙박 & 요식(19.8%), 운송/창고(8.6%), 건설(6.5%), 광업(4.9%), 의료(3.4%), 교육(3.3%), 제조(2.9%) 업종 중심 성장
- <캐나다 서부 5대 산업 성장 추이(단위: C\$백만)>

#	산업	2019	2020	2021	2022	성장률('21-'22)
1	광업	121,527	108,196	119,023	124,912	4.9%
2	부동산	89,707	91,999	95,841	96,868	1.1%
3	건설	53,216	50,763	53,357	56,758	6.4%
4	제조	46,691	42,744	44,907	46,059	2.6%
5	의료	41,670	39,500	43,183	44,637	3.4%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3년)

3. 무역 현황(2023년 7월 누적 기준)

□ 수출입 현황

- 총 교역규모(수출+수입) 전년 대비 14.4% 감소한 1,764억 달러, 634억 달러 흑자
 - (수출) 加 서부 지역 수출, 전년비 18.1% 감소한 1,199억 달러
 - (수입) 加 서부 지역 수입, 전년비 5.3% 감소한 564억 달러
- 지역별로는 BC주가 3개 주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 앨버타주 흑자 규모 전국 최고
 <2023년 7월 누적 加 서부 3개 주 수출입 현황(단위: U\$백만)>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BC	25,066	32,538	-7,472
앨버타	73,394	17,209	56,185
서스캐처원	21,467	6,737	14,730
합계	119,927	56,484	63,443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 품목별 교역현황

- 주요 원자재 수출 전년비 수출 큰 폭 감소, 운송장비, 건설/기계 수입 크게 증가
 - (주요 수출품) 제재목(-51.2%), LPG(-35.6%), 유연탄(-27.0%), 원유(-23.3%), 비료(-26.0%)
 - (주요 수입품) 온수기(131.7%), 승용차(56.7%), 트랙터(28.5%), 불도저(22.6%)
- <2023년 加 서부 3개 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2709	원유	112,620	51,323	-23.3	2710	정유	9,528	4,743	-15.6	
2	2711	LPG	22,025	8,400	-35.6	8703	승용차	2,825	2,414	56.7	
3	3104	비료	12,559	5,457	-26.0	8419	온수기	1,475	1,558	131.7	
4	2701	유연탄	10,825	5,279	-27.0	8701	트랙터	1,146	865	28.5	
5	1001	밀	5,891	4,126	43.9	8429	불도저	1,220	833	22.6	
6	1205	유채씨	3,533	2,445	52.4	8517	전화기	1,269	734	0.6	
7	4407	제재목	7,098	2,405	-51.2	8431	기계부품	1,212	690	-2.8	
8	1514	유채유	3,621	2,262	11.4	8471	PC부품	1,481	655	-31.2	
9	4703	화학목재펠프	3,618	1,799	-10.7	8704	화물차	923	642	24.8	
10	3901	폴리에틸렌	3,488	1,652	-26.9	8802	항공기	1,388	627	-17.5	
합계			185,278	85,148	-22.8	합계			22,467	13,761	7.1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4. 한국과의 교역 관계(2023년 7월 누적 기준)

□ 수출입 개요

- (수출) 전년동기(13억 8,600만 달러) 23.1% 감소한 10억6600만 달러
- (수입) 전년동기(32억 52만 달러) 39.8% 감소한 19억2600만 달러

<한국 대(對) 캐나다 교역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7월)*	증감률(22~23)*
수출	1,118	1,545	2,274	1,066	-23.1%
수입	2,127	3,046	4,543	1,926	-39.8%
무역수지	-1,009	-1,501	-2,268	-860	-62.1%
총교역액	3,244	4,591	6,817	2,992	-51.6%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 지역별 수출

- '23년 7월 기준 對 서부 수출은 3개 주 모두에서 전년비 큰 폭 하락
- 수출액 규모는 BC가 9억 2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84.6%) 차지

<한, 대 캐나다 서부 지역별 수출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7월)*	증감률(22~23)*
BC	934	1,347	1,946	902	-23.7%
앨버타	154	167	254	128	-22.8%
서스캐처원	30	31	74	36	-7.0%
합계	1,118	1,545	2,274	1,066	-23.1%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 품목별 수출입

- 철강, 파이프, 건설중장비 등 건설용 자재·기계·장비 수출 증가세 뚜렷
-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신규 주택 건설투자가 활기를 띠고, 정부의 공급망 인프라 개발사업 등 건설투자 확대에 건설장비·기계 수입 증가

<한국 대(對) 캐나다 서부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7305	철강(파이프)	130	97	74.5	2701	유연탄	1,988	900	-42.2
2	8429	건설기계	71	70	91.0	2711	LPG	375	203	-5.4
3	7306	철강(튜브)	95	67	36.1	2603	동광	632	148	-65.0
4	8413	펌프	75	48	12.3	3104	비료	60	63	4.2
5	7210	철강(평판)	94	47	-31.8	8105	코발트	9	56	1672.1
6	8418	냉장기구	71	37	-12.8	7502	니켈	177	56	-50.0
7	8502	발전기	77	32	-21.2	4705	목재펄프	107	53	-13.5
8	7208	철강(후판)	90	32	-45.1	4703	화학제품	121	52	-30.6
9	7216	철강(형강)	134	29	-55.6	0202	냉동쇠고기	103	41	-42.9
10	8431	기계부품	40	21	-5.6	1514	유채유	147	39	-46.3

*2023년 7월 누적액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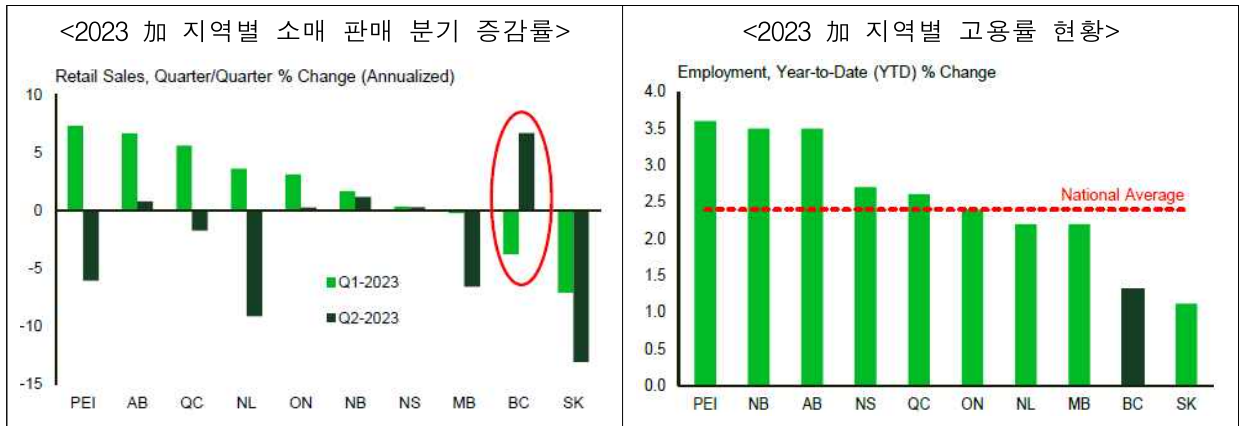
자료: Trade Data Online(2023년)

V. 캐나다 서부 시장현황 및 전망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상반기 내수가 성장 견인... 올해 BC주 경제 성장률 1.2% 전망

- 올해 항만노조 파업(7월)과 역대급 산불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택 시장 반등, 소비자 지출 호조로 급격한 경기 하락은 모면
- 하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과 정부의 추가 금리 인상 조치로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 냉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가계소비가 2분기에 큰 폭 증가했지만, BC주 가계 평균 부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지출 억제 압박이 커져 가계 소비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美-中 교역 의존도 높아 교역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시장 타격 불가피

- 단기적으로는 서부 항만 파업 타결 이후 적체된 화물 처리 노력이 BC주 교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지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BC주 수출 의존도 : 美 56.5%, 中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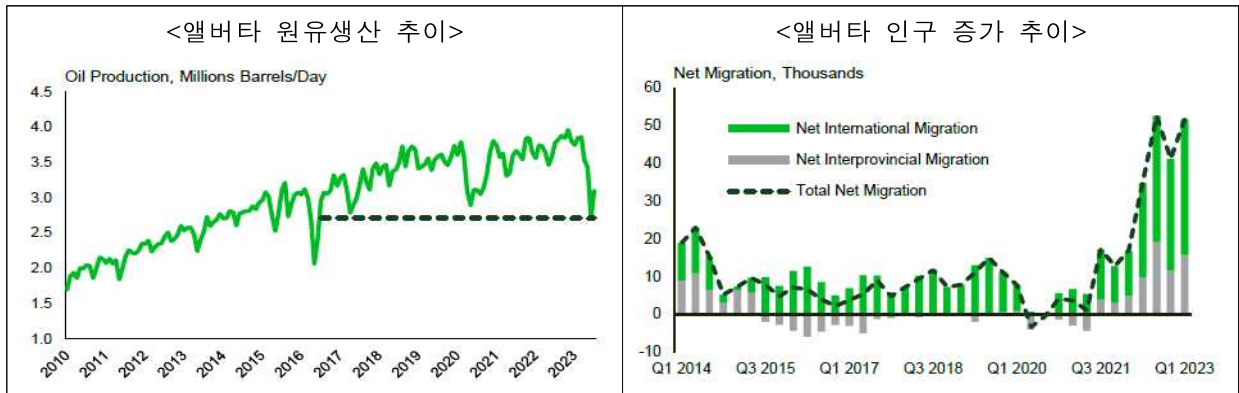
<BC주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GDP(%)	1.2	0.5	1.7
실업률(%)	5.2	6.2	5.9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7.9	39.2	38.5
주택 거래(%)	-7.9	6.8	18.4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앨버타

- 앨버타, 견조한 노동시장… 원유생산 감소에도 전국 최고 성장률 기록 전망
 - 올해 원유생산 감소로 실질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견고한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소비자 지출이 호조세를 유지하며 부정적 영향을 상쇄, 2023년 전국 최고 성장률(2.3%) 기록 전망
 - 캐나다 통계청이 올해 1분기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앨버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 인구 증가(+52,000명)를 기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과 밝은 경제 전망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높은 고용 창출 실적으로 202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용 증가율(3.5%) 기록 전망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내년 원유 생산량 회복 기대…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건설 지연 시 악영향 우려
 - 2분기 역대급 산불 피해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1분기 대비 15% 감소하며 역대 두 번째 최저 생산량 기록
 - 하지만 올가을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돼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예년 수준 회복 기대
 - 다만, 최근 불거진 파이프라인 매설 경로변경 이슈로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가동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원유생산 회복 시점 또한 2025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

<앨버타주 경제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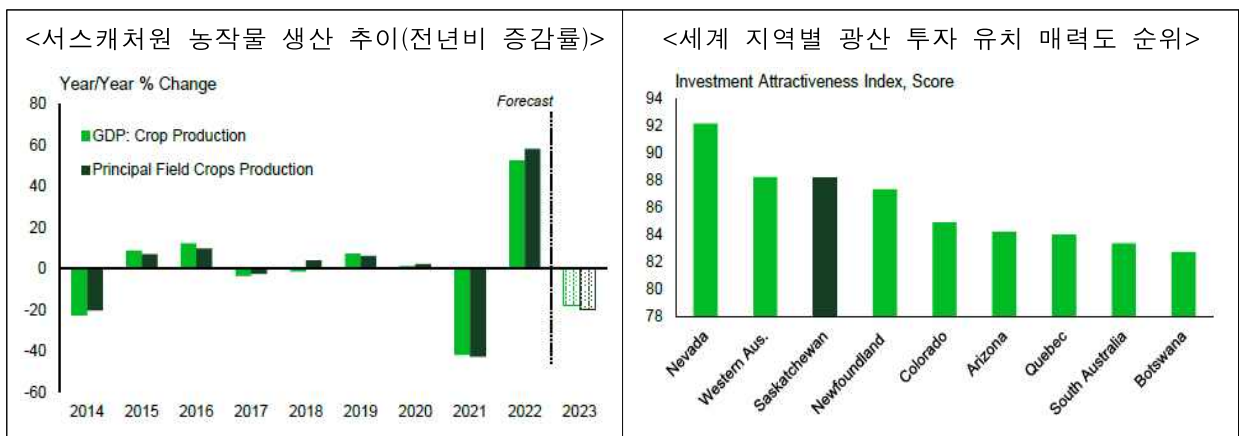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GDP(%)	2.3	1.2	3.8
실업률(%)	5.9	6.5	6.6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31.3	29.8	30.3
주택 거래(%)	-7.2	8.3	3.1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서스캐처원

○ 지역 주요 농작물 및 칼륨 생산량 하락... 경제성장에 걸림돌

- 캐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가뭄, 산불 등 심각한 기상재해로 인해 올해 서스캐처원 주요 작물 생산량은 전년비 약 20% 감소 예상(서스캐처원 농업 GDP 기여 비중 8%)
- 여기에 밴쿠버 항만 파업의 악재가 겹쳐 칼륨 생산량 또한 전년비 큰 폭 감소 예상
- 다만, 안정적인 주택 가격이 지역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 내수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원유, 우라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 확대로 반사이익 기대

- 2023년 6월 OPEC 등 주요 산유국이 내년 말까지 감산 연장을 결정, 現 원유 공급 제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당분간 유가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한편, 서스캐처원은 앨버타와 달리 올해 원유 생산량이 전년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지역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오일 산업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우라늄 또한 가격이 최근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시가 레이크(Cigar Lake) 광산과 키 레이크(Key Lake)의 생산량 증가 기대

<서스캐처원주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GDP(%)	1.3	1.5	1.2
실업률(%)	4.9	5.5	5.4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1	3.8	4.5
주택 거래(%)	-0.8	4.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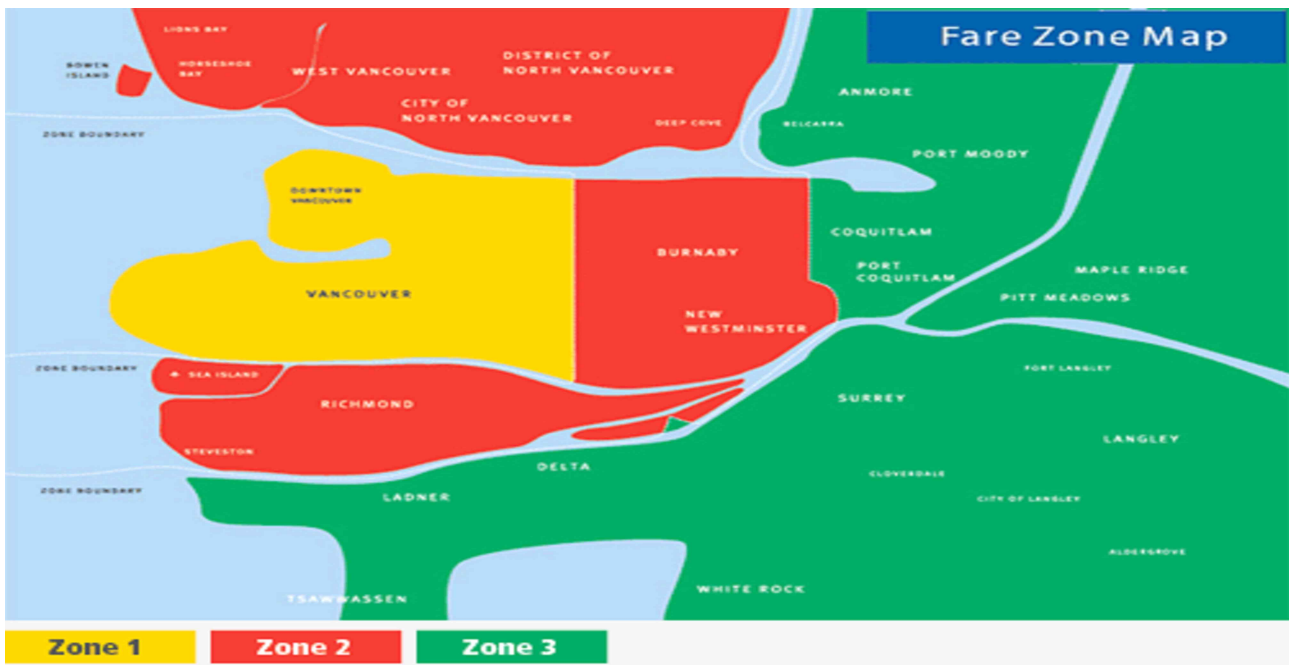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 마다 \$0.10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주요 명소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²,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잭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 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상호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ra Sushi	604.806.6321	1069 Denman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 식료품점

상호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퀴틀람)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주요 여행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